

준비기간만 26년 걸린 공공미술작품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얼마 전 정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연구진으로부터 공공미술사업의 성과 분석 및 미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국내외 공공미술 우수사례’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관련 사업의 향후 지향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는 것이 요청의 목적이었다. 단, 국내외 각각 1개만 제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Teeter-Totter Wall’과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을 추천했다. 전자는 막대기 세 개로 구성된 핑크색 시소로, 사회참여미술이자 정치적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는다. 미국 UC 버클리대 건축학과 교수인 로널드 라엘(Ronald Rael)과 멕시코 디자이너 버지니아 산 프라텔로(Virginia San Fratello)가 함께 고안했다. 2019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에 설치되어 분단과 통제 의 상징을 연결과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시킨 작품이다.

후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

울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강예린, 이재원, 이지훈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SoA’의 2017년 작품으로, 자연 현상인 ‘윤슬’(햇빛 혹은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의 빛의 미학에 문화적 특수성을 결합했다는 게 특징이다. 도시 경험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감각적 인식을 확장시킨 작업으로 인정받는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토(Chris to Vladimirov Javacheff)와 잔느 클로드(Jeanne Claude Denat de Guillebon)의 몇몇 작품들도 우수한 공공미술로 손색이 없다. 주요 작품 중에는 2005년 2월 12일부터 약 보름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선보인 ‘The Gates’가 있다. 약 37km에 달하는 공원 산책로에 높이 각각 5m 정도 되는 옐로우색 깃발 7503개를 이용한 포털 형식의 설치물이다.

이 작품은 공공미술의 핵심인 사회적 기능을 비롯해 공공성, 접근성, 장소성, 대중성, 참여성, 일시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짧은 전시 기간 동안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센트럴 파크로 끌어들었다.

의미 있는 공공예술을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란 경험하고 느끼는 것임을 상기시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예술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실현하기 위해 제작된 ‘The Gates’는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을 재정의하고 예술이 어떻게 일상적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예술과 자연,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인정받는 ‘The Gates’는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1979년 처음 구상한 이후 준비기간만 26년에 달했으며, 작품에 사용된 예산 280억 원은 모두 작가가 부담했다. 이는 예술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일관된 방식이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재료 중 일부는 철거 후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화분과 같은 일상용품으로 재탄생했다.

공공성과 예술, 도시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The Gates’의 의미는 참여와 경험, 기억의 공동체화라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주요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공공미술을 조각이나 벽화 중심의 전통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달리 경험 중심의 시공간적 예술로 확장시킨 작품이라는 점 또한 이 작품이 지닌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미술평론가

‘이재명 정부’ 서민·기업 아우르는 대통령 되길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제대로 된 경제 지식으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6·3대선을 10일 앞두고 언급한 유세종 발언)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파란 옷을 입고 파란 손수건과 바람개비, 풍선, 응원봉을 손에 들고 흔들었으며 도로 한켠에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하거나 율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진짜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다수 국민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

졌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는 등 역대 정권 어떤 때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탄생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감도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감도 막중하다는걸 느낄 수 있다.

스스로를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고 이야기 할 만큼 가난을 딛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자신을 괴롭혔던 가난을 이겨내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해 인권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개천에서 용 났다’는 상투적 표현이 딱 그대로 대입될 만큼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투형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가지 차이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민 대통

령’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모습을 돌아켜보면 ‘서민과 기업을 아우르는 대통령’으로 폭넓은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연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막 시작된 만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서민은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 산업 정책을 펼칠길 희망한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5일 (금 5월 1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작은일이라도 내가 나서서 술선수범을. 48년생 신세진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60년생 선배의 조언은 경히하 듣도록. 72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84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을.



소

37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다. 49년생 옳지 못한 일에 빠져들 수 있으니 소통해야. 61년생 큰 상처는 반드시 치료할 수 없다. 73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85년생 어느 방향도 거칠 것이 없다.



호랑이

38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아라. 50년생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 62년생 무리수를 두면 기회마저 잃게 된다. 74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86년생 오늘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과 양보뿐.



토끼

39년생 내 것이 작아 보이나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51년생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63년생 좋은 것이 좋게 좋은 것을 부른다. 75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스스로 알고 도와준다. 87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주의.



용

40년생 바쁘더라도 화재주의는 꼭 확인. 52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마음이 흔들린다. 64년생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76년생 남 좋은 일시키는 것 같아도 내게 돌아온다. 88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내 현실.



뱀

41년생 주변에 적이 많으니 오만하지 말고 언행에 특히 주의. 5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온다. 65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7년생 불평보다는 직무에 충실해야. 89년생 살면서 쌓은 공덕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

42년생 상대방은 호기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 54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66년생 죽순은 비 온 뒤에 더 잘 자라니 역경을 참자. 78년생 정든 사람이 떠나간다. 90년생 종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방황을 하니.



양

43년생 하늘 아래 새것은 없다. 55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남은 것은 성공뿐. 67년생 하나를 투자해 세 개로 돌아오는 좋은 날. 79년생 부모님 건강감진을 미루지 말고 체크해야. 91년생 조상님 선한 일로 영겨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원숭이

4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56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이 순조롭다. 68년생 장미꽃이 발아래 활짝 피어난다. 80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니 다시 실천. 92년생 부부간 초심을 잃지 말고 늘 같은 자세로 생활.



닭

45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57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6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도록. 81년생 작은 일이라도 무심히 넘기지 마라. 93년생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게 되니.



개

46년생 무지개를 보았으니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58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7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포기. 82년생 선을 쌓은 집에 남은 경사가 있다고 말을 한다. 94년생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좋을 것인데.



돼지

47년생 돈을 자손이 지키란 법은 없으니 인색하지 말도록. 59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이다. 7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 83년생 절약과 구두쇠는 본질이 다르다. 95년생 오토바이 탈 때도 음주는 안 됨을 명심.



김상회의四季 부부유별(夫婦有別)

신문의 기사 한 줄을 보고 오늘은 부부유별 얘기를 하고자 한다. 부부유별이란 우리 선조들이, 특히 조선 6백년간의 유교 문화 전통에서는 신준단지처럼 떠받들던 삼강오륜의 한 대목이다. 부부인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분명한 역할과 도리(道理)가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이른다.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역할분담 사고에 기인한다. 가장인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역할이고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잘 돌보는 것이 주된 의무였다.

그러하던 역할 인식은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회환경이 천지개벽이 되다시피 하면서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가 증장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와 능력의 발휘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기여도 역시 발전했다. 그런 까닭에 부부 사이의 전통적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녀의 역할이 유별했던 것은 과거의 서양이나 동양도 다를 바는 없었다. 서양의 경우,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된다.

전통적 가부장적 의미에 맞는 자연스러운 관습이다. 또한, 여자의 탄생 자체를 아담의 갈비뼈에 연유한 것으로 보는 기독교적 사고에 의해 아내는 남편 성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동양에 속하는 일본에서는 부부 별성제를 허용하지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결혼해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추론이 있다. 즉 별사회였던 중국과 우리나라는 혹여 아내의 가문이 역모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될 경우, 이와 연관된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중·고·고등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1			5	9		
					8			5
4			3				1	
2								
								1
	8				3			2
6			1					
		7	8		3			4

			2				1	7
	5							4
	3	6						
		5					6	
	2							8
		7					4	
							2	5
	9							1
	8	1				9		

7	6	8	9	5	8	2	7	1
2	9	1	6	7	1	6	9	
1	8	9	2	6	9	6	7	2
6	2	2	1	9	7	9	6	8
6	7	9	2	8	6	9	1	2
9	1	2	6	2	6	8	9	7
9	7	8	1	9	2	2	6	
8	2	6	9	7	2	1	9	6

7	9	2	6	2	6	1	8	9
8	1	6	2	9	9	7	6	2
6	9	2	8	1	7	6	2	9
2	6	7	6	9	1	2	9	8
1	8	9	7	2	9	6	2	6
2	6	9	2	6	8	9	1	7
9	2	8	1	7	6	9	6	2
6	7	6	9	8	1	2	9	1
9	2	1	9	6	2	8	7	6